

HOLY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1523 McLaughlin Ave. San Jose, CA 95122 [www.sjkoreancatholic.org](http://www.sjkoreancatholic.org)

##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 밤 미사를 마치고 성당 마당으로 나오며 받는 기분은 한 해의 가장 큰 선물과도 같습니다. 사랑 가득한 주님의 영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를 감싸고 계시다는 느낌이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땀에 와 닿는 차가운 밤공기도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의 세계 안에 머무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입니다. 눈과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은 잔잔한 기쁨과 웅크린 감동으로 따뜻합니다. 이러한 밤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도 유난히 기억에 더 오래 남는 밤 미사 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혼자서 한적한 산 밑의 수도원에서 피정하며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수사님들과 신자분 몇몇과 함께 미사를 봉헌한 뒤 서로 눈인사를 나누고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밤, 별빛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한한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던 체험이 잊히지 않습니다. 또 어느 해에는 미사가 끝나자 곧바로 눈이 내렸습니다. 그 순백의 눈을 맞으며 느낀 순수한 즐거움과 포근함, 그리고 마음의 가벼움이 다시 떠오릅니다. 마침기 시인이 노래한 '눈 오는 날의 미사'에는 눈 내리는 아침의 미사에 대한 감동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사는 흰옷 입은 하느님과/ 그 아들의 순한 입김과/ 내게는 아직도 느껴지다 말다 하는/ 하느님의 흔까지 함께 섞여서/ 겨울 아침 한장 없이 눈이 되어 내린다.// 그 눈송이 받아 입술을 적신다./ (중략) 오래 비어 있던 나를 채운다./ 사방에 에워싸는 하느님의 체온,/ 땅에까지 내려오는 겸손한 무너짐./ 눈 내리는 아침은 희고 따뜻하다." 눈이 내리든 내리지 않든 예수 성탄 대축일의 밤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고 순수하게 만드는 거룩한 밤입니다. 이 복된 밤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에 그저 머물고 싶을 뿐입니다.

## 땅으로 내려오신 평화의 하느님

땅으로 내려오신 하느님,  
사람들 한가운데 계시는 하느님!  
당신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신 분이요  
전 인류를 당신게로 다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오! 인간들을 위한 하느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깊이여!  
목자들과 함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천사들의 합창단과  
어우러져 춤을 춥시다.



- 성 대 바실리오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에 대한 강론」 중에서-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회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모든 교우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 예수 성탄 대축일 밤미사

◆ 미사 성가 : ◆ 구유안치 (93,94,99) ◆ 경배(102,105) ◆ 봉 헌(103,106) ◆ 성 체(110,98) ◆ 파 견(484)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화 답 송 : 시편 96(95),1-2,7,2,3-11-12,13(◎ 루카 2,11 참조)



(후렴) 오 늘 우 리 구 원 자 주 그리 스도 태 어 나 셨 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토서 말씀입니다.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예수 성탄 대축일 낮미사

◆ 미사 성가 : ◆ 입 당 (100) ◆ 봉 헌(107,109) ◆ 성 체(98,101) ◆ 파 견(484)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 답 송 : 시편 98(97),1,2-3,7,3,3,4-5-6(◎ 3,3,3)



(후렴) 우 리 하 느 님 의 구 원 을 온 세 상 땅 끝 마 다 모 두 보 았 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 2 독 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1-6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8(또는 1,1-5,9-14)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